

“ 정의란 무엇인가? ”

■ 이종윤 원로목사

예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자기 사역을 시작하실 때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자신을 여호와 의 종으로 말씀하면서 그가 이방에 정의를 가져올 것을 선포하셨다. 많은 이들이 예수는 은혜와 용서를 가져온 분으로만 알고 있으나 예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세상에서 정의를 찾고 시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예언자 아모스도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했다.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된 것도 그가 위대한 글을 썼기 때문이라기보다 그만큼 정의에 대한 관심을 사람들이 갖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문제는 정의를 외치는 사람은 많으나 정의를 실천하는 이들이 많지 않다는 데 있다. 정의 실천을 한다는 말은 무엇인가? 정의 실천은 약자를 돌보는 것이다.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기름이 아니라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임을 선지자 미가는 선포했다.

정의와 인자가 서로 다른 것이 아니고 인자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은혜와 동정을 말한다면 정의는 그것을 행동하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정의 행동 배후에는 인자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행하기 위해 우리는 인자를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나오는 정의를 행해야 한다. 구약에 200번 이상 나오는 정의라는 말은 사람을 공평하게 대하라는 것이다. 거류민이나 본토인에게 법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 사면을 하거나 형벌을 줄 때 종족, 신분여하를 막론하고 동일한 벌과 사면이 시행되어야 한다. 정의는 잘못된 행위에 대한 형벌뿐 아니라 그들의 권리를 그 사람에게 돌려주는 것이다. 정의는 벌을 받거나 보호를 받거나 돌봄을 받든지 그 권리를 백성에게 돌려주는 것이다. 고아, 과부, 가난한 자, 나그네, 특히 오늘날엔 탈북난민, 외국인 노동자, 노숙자, 결손가정의 자녀들, 장애인, 힘없는 노약자와 같은 약자를 돌보는 것이 정의라고 성경은 가르친다.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방어자)이시라(시 68:4-5) 하나님은 자신을 힘없는 자와 동일시하시고 그들의 억울함을 들으신다. 고대사회에서는 이 같은 정의를 불명예스런 수치스러운 정의라 비웃었다. 고대 사회의 신들은 그 사회의 엘리트 즉 왕 제사장 군대 지휘관들과 함께 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힘없는 자의 편에서, 가난한 자를 위한 정의를 세우시는 하나님이이라고 조롱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도와주었으며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잇새에서 빼내었느니라(욥 29:12-17) 하셨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뿐아니라 다른 이들과의 관계를 바르고 관용과 공평한 관계를 맺는 것이 정의로운 삶이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에게 너그럽게 주는 것은 자비요 동정 또는 구제지 정의는 아니라고들 말한다. 그러나 구제가 좋은 것이지만 그것은 선택적 활동일 뿐이다. 강요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성경은 너그럽게 남에게 주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로 가르치고 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하셨다. 너그럽게 주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깨뜨린 불의라는 것이다. 나만 혼자 내 떡 덩어리를 먹었고 고아와 과부를 못 본 체 했고 가난한 자가 덮을 것 없을 때 못 본 체했던가. 욥은 그 같은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한다. 따라서 정의로운 삶은 정직 공평 그리고 관용이 그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한 삶이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인간이라면 특히 아담 이후 상실된 하나님의 형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한 이라면 하나님의 정의를 너그럽게 실천해야 한다. 자력 구원 능력 없는 당신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정의를 반향 해야 한다. 이 정의는 의를 옷으로 입듯이 겉옷과 모자같이 항상 내 몸에 함께 있어야 한다. 정의 실현의 기회를 멀리서 찾지 말고 주변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를 찾아 도와야 한다.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신원하여 주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사 1:17) 하신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는 우리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자.

-한국장로신문 2013년 4월 13일 발취

사랑하는 서울교회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도 사명자대회에 말씀과 기도, 사랑의 실천으로 열심히 참여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10월 넷째 주일입니다. 거룩한 주일에 함께 모여 정성 다하여 예배드리고 봉사하며 성도의 교제의 기쁨을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임무를 잘 감당하는 서울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쓰임 받는 축복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편,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는 당회원과 은퇴장로, 교역자 가족이 사명자로 서기를 다짐하는 특송을 드립니다. 매 주 찬양예배 시간에 위원회 별로 드리는 특송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1,2,3부 및 찬양예배 시간에 제공되는 실시간 온라인 영상예배 접속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이번 한 주간 새벽기도, 수요일예배는 실시간 중계되지 않습니다.

* 실시간 영상예배 접속방법은 이전과 같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ziHchZPo8YwmR9UYpoXJrA>

주일예배 순서도 함께 보내드립니다.

* 예배 순서 및 영상예배 지침

http://www.seoulchurch.or.kr/upload/20221023_sermon.jpg

서울교회 당회 드림

우리의 비전 (vision)	① 세계 복음화(Evangelization of the whole world) ② 교회 천국화(Kingdomization of the whole church) ③ 문화 기독교화(Christianization of the whole culture)	서울교회QR코드 
--------------------------------	---	---

부 목 사 장석남 조원영 안용근 조동수 김익환
전도사 박미라 **준전임전도사** 강남희 이대원 **교육전도사** 허은 정기성 김예지 **협동목사** 심우진 전재홍 양정호
선교사 전광혜(서아시아), 이은준·강해경, 양재성·이현주(카자흐스탄), 이경엽, 조남혜(방글라데시), 조범연·김희경, 우상식·김정욱(인도), 서광중·이성일(인도네시아), 김용진·황경혜(말리위), 김영호·서향정(러시아), 허창범·허미순(일본), 김낙형·오정녀(케냐), 김종일·백순미(외국인 노동자), 박명성(총회), / 이삭, 비스타파, 사지, 에녹(인도), 스프로토바로이, 필리몬, 프로산도, 수레시, 수바쓰, 알로롱, 비시누보도, 보디소프, 린름, 수란존(방글라데시) / 김태식, 윤왕모, 이금순, 김명일(군선교)

	전국시민 양성·만민에게 전도·빈약한 자 구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SEOUL PRESBYTERIAN CHURCH	
	원로목사 Emeritus Pastor 이 종 윤 Lee Jong-Yun, Ph. D., D.D., D. D.	담임목사 Senior Pastor 손 달 익 Rev. Son , Dal-ig Tel.558-1106 / Fax.558-2107 http://seoulchurch.or.kr/
06280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길 7 7, Samseong-ro 51-gil, Gangnam-gu, Seoul Korea		

“ 하나님의 사람을 키웁시다 ”

■ 디모데후서 2:1-13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마 28:19)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전국시민 양성을 위한 교회의 교육적 사명을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교회교육 문제는 단순히 양육의 문제가 아니라 수십 년 내에 찾아올 교회 존립위기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교회교육을 강화하고 그 사명에 온 교회가 함께 나서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세대를 이어가는 가르침을 통해서 교회는 언제나 헌신자들을 길러내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 사역을 계속 이어가야 합니다.

1. 실패한 교육의 후유증
 사도행전 8장의 빌립 집사의 전도로 신앙을 갖게 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술사 시몬이었습니다. 그는 회개하고 세례 받았습다. 그런데 그가 훗날 로마에 다시 나타났을 때 자신을 자칭 하나님이라 하면서 교회를 어지럽혔습니다. 초대교회를 가장 극심하게 괴롭혔던 초기 영지주의 이단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왜 그가 교회를 어지럽히는 이단자가 된 겁니까? 결국은 사마리아 교회의 양육의 실패였습니다. 교육의 실패는 이렇게 엄청난 역사의 혼란을 불러오고 교회 미래를 어지럽게 합니다. 디모데후서에서 바울은 천국에 대한 넘치는 소망을 제시하면서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잘 양육된 다음 세대들이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 누가, 마가, 두기고, 에라스도 등 제2세대 지도자들이 사도 시대를 능가하는 교회 역사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나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살전 2:19) 바울은 잘 양육된 후대들을 보면서 그들이 자기의 자랑이며 면류관이라고 고백합니다.

2. 디모데는 어떻게 양육되었는가?
 바울은 환난 가운데 있던 데살로니가 교회를 돌보는 일(살전3), 분규로 몸살을 앓던 고린도교회를 수습하는 일(고전16), 에베소교회를 목회하는 일(딤펴1) 등 중요한 일들을 디모데에게 맡겼습니다. 디모데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한 두 축이 있었습니다. 가정 신앙교육과 바울의 사역훈련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르치고 진실한 믿음을 갖도록 키운 분들은 외환머니와 어머니였습니다. 동시에 디모데를 신실한 일꾼 되게 만든 것은 바울의 돌봄과 양육이었습니다. 가정 신앙교육과 교회의 좋은 지도자를 통한 훈련 두 기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두 기둥에 문제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자녀들의 학업이 우선순위에 있어서 신앙교육이 어렵고, 교회학교는 어려운 시기와 코로나 사태를 지나면서 힘든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다음세대를 향한 사명을 수행해야 합니다. 다음세대를 세우는 것이 주님의 사명으로 알고 함께 도전하고 기도하고 헌신해야 하겠습니다.

3. 어떤 사람으로 양육해야 하는가?
 ‘내 아들아...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바울은 디모데가 다른 사람들을 좋은 지도자로 길러낼 수 있기를 원했습니다. 우리의 목표가 다른 사람들을 가르쳐서 좋은 지도자가 되게 하는 것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엡4)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가르치고 기도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바울은 세 종류의 삶, 군인이 된 사람과 경기하는 선수 그리고 농부의 삶을 제시합니다. 모두 실천 현장에서 자기 땀과 눈물과 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세상 곳곳에서 주변을 거룩하게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군사가 되고 경주자가 되고 농부가 되도록 우리의 전력을 다하며 기도와 사랑과 눈물을 보태야겠습니다.

이번 주 손달익 목사 설교 요약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주 일 예 배

시 간	인 도	기 도
Time	Prsider	Prayer
I 오전 9시	전재홍 목사	안인호 장로
II 오전 11시	장석남 목사	최형열 장로
III 오후 2시	조원영 목사	조원영 목사

입례송 Prelude 오르가니스트
 예배로 부름 Call to Worship시 100:4-5... 인 도 자
 기 원 Invocation 인 도 자
 * 찬 송 Hymn9(1절)... 다 함 께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다 함 께
 * 성서교독 Responsive Reading28(시 63)... 다 함 께
 * 송 영 Doxology 1 다 함 께
 기 도 Prayer 말 은 이
 찬 송 Hymn496(260)... 다 함 께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딤후 2:1-7... 인 도 자
 성도의 교제 Member's Fellowship 다 함 께
 봉헌 Offering 다 함 께
 * 봉헌송 Offering Hymn634... 다 함 께
 * 봉헌기도 Offering Prayer 인 도 자
 찬 양 Anthem 찬 양 대
 새가족 환영 Welcome to Newcomers 다 함 께
 설 교 Sermon ...“하나님의 사람을 키웁시다”... 손달익 목사
 * 찬 송 Hymn495(271)... 다 함 께
 * 축 도 Benediction 설 교 자
 * 주기도송 Lord's Prayer Song 다 함 께
 오후 8시 본당 2층
 * 표는 회중 모두 일어서는 표입니다. ()는 통일찬송가입니다.

찬 양 예 배

오후 4시 30분 · 인도 안용근 목사, 설교 손달익 목사

목 도 다 함 께
 성 시 시 127:1 인 도 자
 찬 송 23 다 함 께
 기 도 이영훈 집사
 찬 송 250(182) 다 함 께
 성 경 왕상 9:10-28 인 도 자
 찬 양 찬 양 대
 설 교 “빛과 그림자” 설 교 자
 교역자, 장로 부부 특송 말 은 이
 * 찬 송 53(59) 다 함 께
 * 축 도 설 교 자
 * 주기도송 다 함 께

수요일예배

I부 오전 11시인도: 조원영 목사
 II부 오후 7시설교: 손달익 목사
 기 도 ... I부: 차주연 권사 II부: 권성자 권사
 성 경 왕상 10:1-13 인 도 자
 찬 양 찬 양 대
 설 교 ... “소문이 사실이로다” ... 설 교 자

새벽기도회

오전 5시30분 피아니스트: 홍혜란 · 박수강 · 김복희2 · 이경희3
 설 교 손달익, 장석남 목사

금요일기도회

오후 8시 본당 2층
 설 교 조원영 목사

◆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엡 5:19) ◆
 CANTANTES ET PSALLENTE IN CORDIBUS VESTRIS DOMINO

찬 양 대						봉 헌 송		
예 배	찬양대	지휘자	오르가니스트	피아니스트	팀파니스트	찬양대	지휘자	피아니스트
I부	가브리엘	백경화	전지희	장희원	윤주일	가브리엘		
II부	할렐루야	최유현	차주연	김양언	윤주일	그레이스앤드벨	송재월	
III부	임마누엘	유태왕	전지희	이주희	윤주일	아멘관현악단	임범창	
찬양예배	베들레헴	박래경	안효주	박수강	윤주일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딤후 2:2)	금주의 성구	
수요I부	호산나	구민영	김윤지	홍혜란				
수요II부	시 온	최유현	김예지	조현정				

예배 및 집회시간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본당
	II 부 예 배	오전 11시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4시 30분	
수 요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11시	본당
	II 부 예 배	오후 7시	웨스트minster 홀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	본당
금 요 기 도 회		오후 8시	

교회소식

모임

1. 스테반 임원회 / 23일(주) 오후 1시 609호
2. 권사 월례회 / 23일(주) 3부 예배 후 101호
3. 1교구 연합모임 / 29일(토) 오전 10시(교회 출발) 양재천 걷기 대회
4. 목회 정책 협의회 / 29일(토) 오후 2시 802호

알림

* 24일(월)부터 29일(토)까지 한 주간 본당 LED 모니터 설치공사 관계로 새벽기도와 수요일예배, 금요일기도회는 웨민홀에서 진행되며, 실시간 온라인 영상예배는 한 주간 중단됩니다.

1. 101호
고등부 예배 : 주일 오전 9시-10시, 청년부 예배 : 오후 2시
2. 102호
소망부 예배 : 주일 오전 10시10분-11시
3. 403호
영아부 : 주일 오전 9시-오후 6시
4. 501호
중등부 예배 : 주일 오전 9시-10시
5. 601호
초등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12시10분 / 청년2부 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6. 602호
새가족부 : 주일 오전 10시10분 · 오후 12시10분
7. 603호
사랑부 : 주일 오전 10시30분-11시30분 / 청년1부 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8. 609호
세례교육부 : 주일 오후 12시10분 / 청년2부 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9. 701호
유년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12시10분
10. 702호
유치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12시10분
11. 706호
유아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12시10분

장례

- 1.故 최춘지 권사(1교구 최익진 집사의 모친, 전화선 집사의 시모) / 10월16일 별세, 10월18일(월) 발인

새가족소개

성 명	다락방	소속부서	인도자	성 명	다락방	소속부서	인도자
이홍주	5-12	안드레	임우택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지난주 출석현황(인터넷 영상예배 포함)				
주일1,2,3부	찬양예배	주일예배 합계	수요일예배	새벽기도
1,427명	522명	1,949명	431명	2,013명

기도할 자리

기도하기 위해 장소를 찾아 헤매는 이들이 있다. 물론 상달되기 위한 기도를 드리려면 하나님께서 들으실 수 있는 자리에서 빌어야 한다.

가장 적합한 기도의 장소가 있다면 그곳은 순종의 자리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내 말만 들으라는 식의 기도는 억지로 기도가 아니다.

상달될 기도가 되려면 회개의 자리에서 빌어야 한다. 아우성을 치거나 미사여구를 늘어놓는 기도가 아니고 여호와 앞에서 옷을 찢듯, 마음을 찢으며 죄를 통회하고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다.

또한 충성의 자리에서 기도하자.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비는 기도라야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겠기 때문이다.

순종과 회개와 충성의 자리에서 비는 기도를 우리 모두가 드릴 수 있도록 하자.

-이중윤 원로목사 신앙칼럼 '순례자'에서-

청결

유지

거룩한 하나님의 집을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해 힘씀시다.

에너지

절약

불필요하게 전기를 켜놓은 복도와 화장실 전등을 끄시다.

방을 사용한 후 나올 때 반드시 전기(전등, 플러그, 마이크 등)를 끄고 나옵시다.

주일

성수

주일은 예배와 전도하는 날입니다.

기급적 회의를 줄이시고 예배와 전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